**연중 제4주일(2018년 1월 28일) 강론**

김도윤 프란치스코 신부

여러분들은 혹시 하느님은 어떤 모습이실까하고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오랜 동안, 아주 많은 사람들이, 많은 예술가들과 신학자들이, 하느님의 모습을 표현하려 시도했었지요. 저는 어렸을때, 그냥 어린 마음에, 하느님이 긴 하얀 수염을 가진, 아주 관대하고 자비로운 얼굴을 지닌 할아버지의 모습일거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신학교에 가서 신학을 공부하고, 성경을 자세히 읽고 난 다음에는, 하느님은 공간이나 물리적인 어떤 지배도 받지 않는 신비로운 ‘영적인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죠.

하느님은 ‘영적인 존재’이면서, 동시에, 인간의 속성도 함께 가지고 계십니다. 하느님은 사랑도 하시고, 사람처럼 대화도 하시고, 말도 하시고, 화도 내십니다. 하느님은 인격체로서 우리가 느끼는 것과 똑같이 느끼기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기도를 제대로 자주 해야 인격적인 하느님을 만날 수 있죠. 기도를 잘 안하고 살면 하느님이 도대체 어떤 분인지, 하느님과 어떻게 교감을 나누고 살 수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침묵 속에서 기도를 자주 해야 인간과 관계를 맺는 하느님을 느끼고 만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기도 생활이고, 신앙 생활입니다.

기도를 하긴 하는데, 하느님 뜻과는 다른, 내 뜻대로만 모든게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맨날 기도하니까 하느님을 느끼기가 힘듭니다. 그리고 그런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나중에는 원망만 하죠. 왜 내 기도 하나도 안들어 주시냐고... 하느님 뜻에 따라서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기도’입니다.

오늘 복음은 예수님이 지닌 능력과 권위를 전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흔히 정치적인 권력이나 경제적인 힘이 지배하는 세상입니다. 그리고 세상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물질적인 권력을 쫓아 살아갑니다. 그런데, 오늘 복음은 세상이 추구하는 권력과는 전혀 다른, 예수님이 지니신 하느님의 권위를 보여줍니다.

우리들은 모두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런 정치적, 경제적 권력이나 가치를 따르지 않고, 그리스도의 권위를 따라 살겠다고 마음 먹은 사람들이죠.

지난 주 복음 기억하시나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때가 찼다. 하느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그리고서, 첫번째 사도들을 부르십니다.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고 하시니까, 그냥 즉시, 지체없이, 가족과 직업을 다 버리고 그냥 따라갑니다. 권위 있는 그 부르심을 거부 할 수 없었던 것이죠.

저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멀쩡하게 직장다니고, 장가 갈려고 선보러 다니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에 예수님의 부르심을 느끼고 나니까, 거부할 수가 없었습니다.

“주님, 싫어요. 그냥 평범하게 살게 해주세요. 이쁜 여자 만나서, 결혼하고, 애 낳고, 직장 잘 다니면서, 쉽고 편하게 살고 싶어요”라고 기도했는데... “주님, 제가 나이가 많아요. 벌써 서른인데, 언제 신학교 가서 공부하고 언제 신부됩니까? 그냥 다른 사람 부르세요”하고 도망다녔었는데...

도망가봤자 다 하느님 손 바닥 안이었습니다. 그 부르심을 거부할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다 버리고 그냥 예수님 따라 나섰죠. 그러다가 여기까지 와서 이러구 살고 있습니다. 그때 끝까지 도망 안가고 그냥 붙잡혀 온 것이, 제가 평생 한 일 중에서 가장 잘 한 일입니다.

오늘 복음도 그 이야기가 계속 이어집니다. 예수님의 권위있는 가르침, 그 카리스마 넘치는 이야기를 듣고 인생이 바뀌고 기적이 일어납니다. 사람들이 그 가르침에 몹시 놀랐다고 복음서는 전합니다.

“도대체 이게 뭐지?” 들어본 적도 없고, 경험해 본적이 없는 새롭고 권위 있는 가르침이라고 사람들이 모두 놀랍니다. 옹졸하고 찌질하게 살던 사람들이, 서로 티격 태격, “내가 더 잘났네,” “니가 더 못났네” 하며 아웅다웅 다투며 살던 사람들이, 이 놀라운 새로운 가르침에 온 마음을 다 빼앗깁니다. 그냥 한 방에 무너집니다.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던 부질 없고 막연한 무지개빛 행복을 송두리째 바꿔버립니다. 아무도 몰랐던 참된 행복을 제시합니다. 사람들이 열광합니다. 너도 나도 예수님을 가까이 보려고 몰려듭니다. 그런 사람들 사이를 예수님은 아주 담대하고 의연하게, 유유히 걸어가십니다. 그 넓고 자유로운 마음에 하늘 나라의 행복과 사랑을 가득 담고서... 얼굴에 가득 미소를 머금고...

아, 진짜, 예수님처럼 그렇게 멋지게 폼나게 살고 싶습니다. 근데, 여전히 우리는 오늘도 아웅다웅 찌질하게 삽니다. 우리도 예수님 가르침을 좀 따라 삽시다! 넓고 자유로운 마음을 갖고, 좀 낭만적으로, 폼나게 좀 삽시다! 너그럽고 인자하게 좀 삽시다! 세상 일에 온갖 마음 다 쏟고, 매일 걱정, 근심으로 인상 쓰면서, 서로 잘 났다고 싸우지 말고 말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자리에서도 우리 모두에게 똑같이 권위 있는 새로운 가르침을 전하고 계십니다. 들리십니까?

우리 마음 안에는 수많은 걱정과 근심, 이기심과 욕심들이 가득차서 예수님의 그 말씀이 잘 들리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서로 나눌 줄 아는 너그럽고 인자한 마음이 별로 없어서 예수님의 그 말씀이 들어올 자리가 없습니다.

그러고 보면, 그 옛날, 바로 그날, 이스라엘의 한 작은 동네의 회당에서 일어난 사건, 예수님이 ‘더러운 영’에 사로잡힌 그 사람을 고쳐주신 이 이야기는 바로, 내 자신의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인지, 이름이 무엇인지 정확히 밝히고 있지 않는 이유는, 세상 모든 사람들, 바로 내 자신이 바로 그 사람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가끔 ‘더러운 영’에 사로잡혀 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미움과 증오, 편견과 욕심, 분노, 이기심 따위가 바로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더러운 영’입니다.

그 날, 그 회당에서 예수님이 그 사람을 고쳐준 것처럼, 때로는 ‘더러운 영’에 사로잡혀 사는 우리의 마음도 깨끗하게 치유해 주실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예수님의 거룩하고 권위있는 가르침에 믿고 맡겨 보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그것이 영원한 기쁨과 행복을 향해 살아가는 지혜로운 삶입니다. 그리고 우리 신앙인들이 살아가는 방법입니다.